작지만 탄탄한 기업, 진흥기업

1959년 창립 첫해부터 진흥기업은 건축과 토목사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그후 항만건설, 고속도로 건설까지 영역를 확대 국가의 기간산업에 참여하면서 우리나라 산업의 발전에 한 획을 그었다.

70년대와 80년대에 이르러서는 전세계에 걸친 건설분야에 한국인의 근면성과 기술을 바탕으로 해외건설진출의 프런티어정신과 명성을 발휘함으로써 세계적인 종합건설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진흥은 서울 청담동 진흥빌라와 삼성동, 서초동의 진흥아파트, 수원의 정자, 천천아파트 등 전국에 걸쳐 우수한 주택건설로 그 면모를 과시해 왔으며 환경분야와 플랜트분야 등 토목, 건축은 물론 건설의 다양한 분야에 그 역량과 위상을 펼쳐나가고 있다.

"진흥의 프런티어정신을 바탕으로 고도로 숙련된 인적개발의 지속적 노력과 최첨단시스템을 계속적으로 확대하여 고객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초일류 종합건설기업으로의 국제적인 도약을 이룰 것입니다."〈한재호 진흥기업 이사〉

의정부 금오지구 아파트 조감도

한재호 이사는 진흥기업은 주택이나 빌딩만을 짓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는 인류의 미래까지 함께 건설하겠다는 철학으로 미래 건설을 주도할 것이며 고객께서 주시는 사랑과 믿음 그대로 실천하는 진흥이 되겠다고 자신했다.

의정부 금오지구 인기 절정

최근 경기도 제2청사의 이전이 오는 12월 13~15일로 날짜가 잡히면서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금오택지개발지구내 분양권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의정부 2동에 자리잡고 있던 경기도 제2청사가 금오택지개발지구내에 연면적 6,271평의 새 청사를 마련, 이전을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금오지구내 아파트 첫 입주가 내년 5월로 다가옴에 따라 개발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최근 금오지구내 8천여 가구의 분양권 거래가 부쩍 활기를 띠고 있다.

이중 삼성물산 진흥기업 한진중공업 경남기업 한일건설 등 5개 회사가 짓는 38~49평형 총1,819가구의 중대형아파트는 일부 남아있던 미분양분이 최근 빠르게 소진되면서 분양권거래가 활기를 띠고 있다.

현지 부동산중개인에 따르면 "제2도청 입주소식이 알려지면서 매수문의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

용인 죽전 진흥 엣세벨 조감도

라면서 "프리미엄은 이미 낸 중도금의 금융비용을 조금 웃도는 수준으로 아직은 싼 편"이라고 말했다.

교통여건도 괜찮은 편이다. 서울~포천 43번도로, 동부간선도로, 퇴계원~구리 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서울의 강남 · 북 접근이 쉽다. 이와 함께 현재 추진중인 의정부 경전철이 완공되면 지하철 1, 7호선과도 연계되어 대중교통여건이 한결 편리해질 전망이다.

여기에서 진흥기업은 삼성과 함께 38평형 196세대, 45평형 80세대를 분양한다. 진흥기업은 이 아파트에 사이버 빌리지, 환경, 맞춤형, 안전 안심 아파트라는 테마를 분양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우선 사이버빌리지 아파트라는 테마는 2년간 인터넷 사용료 무료제공과 초고속 정보통신 1등급 아파트라는 것이 특징이다. 또 단지내 LAN 설치, 고급 칼라홈 오토메이션, 주방 칼라 액정TV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침실에 원적외선 방출, 향균, 자연 습도조절 등의 기능을 갖춘 바이오 맥반석을 시공하였다. 또한 용적률 227%로 설계하여 환경 친화적인 테마공원을 조성, 단지내 녹지율 31%의 녹지공간을 확보하였다. 아울러 참 초배지 시공, 무독성 페인트, 중앙정수시스템, 스테인레스 지하저수조를 시공하여 입주자의 거주환경 개선에 신경을 썼다.

이밖에도 이 아파트는 2개의 침실과 드레스실을 취향에 따라 1개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방 맞춤형 시스템과 거실과 침실을 가변형으로 설계하였다. 또 소음방지형 욕실, 무인경비시스템, 현관 디지털 도어록, 욕실 비상콜 버튼, 가스 원격 검침기 등 첨단 설비를 도입하였다.

금오지구는 총 39만여평의 터에 모두 8천여 가구가 입주하는 대규모 단지로 지구내에 경기도청 제2청사를 비롯해 세무서, 보훈청 등 각종 공공기관이 들어서는 등 경기북부의 행정중추 역할을 담당할 신도시로 개발된다.

인근 송산, 민락택지개발지구와 연계된 의정부 중심지로 손색이 없으며 인근에 추동공원, 광릉수목원, 수락산 등이 자리잡고 있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아파트단지 용적률은 209% 이내이며 단지 중앙에 광장을 설치, 주민 휴게 공간으로 설계 됐다. 또 지구내에는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가 들어서고 대형 마켓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고루 설치될 예정이다.

진흥기업은 올해에도 수원 천천지구, 용인 등지에서 어려운 분양경기 중에도 분양 완료하는 성과를 거둬 왔다. 이후 진흥기업은 고객에게 작지만 소홀하지 않은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잇고 있다.